

작은도서관에 관한 단상



정우섭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
wj8612@uwm.edu

지난 호 글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공도서관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부분이 한국의 작은도서관 운동이었기에, 필자가 직접 작은도서관을 찾아 가서 체험해 보기로 하였다. 다음 내용은 한국의 어느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단편적인 생각들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15년 가까이 살았고 최근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불과 몇 주 밖에 되지 않으므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더라도 도서관을 사랑하고 작은도서관 운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펼치면 좋겠다는 필자의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필자가 방문한 도서관은 평지에 있을 뿐더러 그 앞에는 연못이 딸린 작은 공원이 있어서 도서관 위치를 비롯한 주변환경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또한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1층에 경찰지구대가 있어 안전 및 보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도서관 정문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인 것도 도서관의 “마케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도서관은 2층인데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상당한 양의 도서들이 보인다.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마을 주민들이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서로 교환해서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책들은 서가에 꽂혀있긴 했으나 실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새로 만든 도서관답게 깨끗한 2층 도서관으로 들어가보면 두 명의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출입문과 직원들의 책상 사이가 너무 좁아서 약간 민망한 느낌이 드는데 작은도서관이니 감수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부모와 유아들의 독서공간이 별도 유리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서가와 열람실이 공존하는 탁 트인 공간이 있다. 서가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지는 않았다. 작은도서관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다보니 장서수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현재 장서 수는 약 6천권, 아주 적은 양은 아니지만 소장하고 있는 장서 수준은 질적으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책들은 이미 대출이 되어 서가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대출이 안 되는 총서류들을 보아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1인당 대출 권수가 2권밖에 되지 않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6천권이라는 장서 수를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면 향후 장서수를 늘려나가겠다는 운영방침을 세우고, 한 사람이 자주 오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오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1인당 대출 권수를 늘려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서가 6천권일 경우 주민 3천명이 대출을 2권씩 한다면 도서관에는 책이 한 권도 남지 않게 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반증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자료들을 도서관 장서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즉 지역 주민들의 정보 욕구가 중요하다. 이 도서관에는 컴퓨터언어 관련 서적부터 번역된 세계명작고전소설(전체 세트가 아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긴 했지만, 좀더 이용자들에게 친근한 책들 위주로 책을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장서구성에서 신문, 잡지 부분이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문은 온라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잡지는 좀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이용에서부터 노인들의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잡지들을 소장했으면 좋겠다.

운영시간도 좀더 유연하게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말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평일 운영시간이 공무원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과 동일하다는 것은 이용자입장에서 비현실적일 것이다. 오히려 주말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은 이용자들의 주말 현실(늦게 일어나는 등)을 고려하면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참고로 필자가 살고 있는 미국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목)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30분,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

에서 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 1시에서 4시이다. 우리나라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형태의 운영시간이 조금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담이지만 미국 공공도서관의 일요일 개관 시간이 오후 1시인 것은 오전에 주민들이 교회 혹은 성당에 많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열람실의 상당부분은 아이들이 자연스레 앉아서 스토리텔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었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은 말할나위 없겠지만 협소한 전체 공간을 생각할 때 서가를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열람좌석을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하여 필요할 때만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안해 보는 바이다.

그 옆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고 있었다. 필자가 있었던 당시 도서관 전체에는 1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컴퓨터가 더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해외의 큰 공공도서관의 대부분 이용자들은 컴퓨터 때문에 도서관에 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작은도서관들에서도 도서관의 마케팅 전략으로 컴퓨터를 더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본다.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눈에 띈 것이 앞에 언급한 유리벽 안쪽의 모자열람실이다.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일반 열람공간이 140㎡인데, 모자열람실이 83㎡이니 면적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그 한쪽 편에는 유아용 도서들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인터넷의 블로그 등에 소개된 글을 보니 그 공간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는데 이유는 아기들의 놀이방 그리고 놀다가 잠을 자는 곳으로 참 좋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거기서 잠을 자는 예쁜 아기들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다. 물론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유아 편의시설인 “놀이방”으로 도서관을 찾는다면 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고 나서 출입문을 나서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모 영어학습지 광고물이었는데 이 학습지 회사의 도서관을 통한 마케팅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터라 그리 놀라지는 않았지만 영어조기교육의 비정상적인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적지 않은 영어학습지 혹은 영어학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케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사서들이 곤란해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 조금 씩씩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바깥으로 나오기 직전에 자동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의 사용법을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택배로 집이나 직장으로 책을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DVD 대여 서비스인 NetFlex처럼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고 다 읽고 난 책은 다시 그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도서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물론 택배 비용이 들 것이다.

종이책의 배달이 번거롭다면 전자책의 이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아마존(amazon.com)의 전자책단말기(e-book reader)인 킨들(Kindle)을 다량 구입하고 전자책들을 구입하여 이를 저장해 놓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종이책 대신에 대출을 해주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전자책단말기를 종이책 대신에 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도서관 방문은 필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우선 도서관이 더 발전하려면 진정으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그 현실이라 함은 필요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지 동네들”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네의 공공도서관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왜냐하면, 괜히 세금을 내면서 본인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도서관을 멋지게 만들기 보다는 차라리 대형 서점의 체인점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딱딱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무선인터넷도 즐기면서 커피 한잔을 앞에 놓고 신간을 마음껏 훑어보다가 집에 돌아가 필요한 책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도서관들은 분주히 그 존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도서관 폐지에 대항하여 끝까지 도서관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갖추면서 그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도서관들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 질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재정적인 지원임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재정적인 지원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도서관은 오래 갈 수 없다. 반대로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손으로 뽑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서관 운동도 보다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기에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서관들은 그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끊임없이 해야 하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